완전한 열반에 이른 부처님 길을 걷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④ 바이샬리에서 쿠시나가르까지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부처님께 올릴 지화를 들고 부처님 다비장에 세워진 라마바르 스투파를 참배하고 있다.

'가자, 쿠시나가르로!' 카쿠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춘다를 위로한 부처님은 쿠시나가르로 향하며 이렇게 말하셨다. 늙고 병든 몸이지만 대중의 앞에 서서 당당히 걸어가신 모습으로 부처님은 그렇게 걸으셨다. 낡은 수레와 같았다, 혹은 사자와 같이 당당했다는 인간 붓다 그 자체, 부처님을 닮아가는 순례단도 그와 같이 걸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의 순례 중후반부 4주차는 부처님 열반길을 따라 걷는 길이었다. 부처님의 마지막 안거처였던 바이샬리부터 열반처인 쿠시나가르까지 부처님께서 열반을 향해 걸은 마지막 길을 따라 걸었다. 약 4주간 쌓인 피로도, 아픈 몸도 순례단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카쿠타 강서 손 씻자 상서로운 법비가

순례 28일차 3월 8일 순례단은 행선을 시작한 지 4km만에 부처님의 마지막 공양이 이뤄진 춘다마을, 파질나바르에 도착했다. 인도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출시간 전 유적지 참배가 금지돼 있다. 이 관계로 순례단은 춘다 스투파가 조성된 파질나바르를 지나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공양보다 더 중요한 상락아정(常樂我淨)이 남아 있기에 순례단의 발걸음에는 걸림이 없었다.

인간붓다로서 육신의 목마름으로 표현됐지만, 번뇌와 갈애를 여읜 경지를 나타낸 500대의 마차가 지난 깨끗한 개울, 그리고 열반에서 탐친치(貪瞋癡)에 대해 한번 더 가르침을 주신 카쿠타 강까지 순례단에게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자연스럽게 행선은 빨라졌고, 해가 뜨기 전인 새벽 5시 경, 순례단은 출발부터 13km, 춘다마을부터 8km를 더 걸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목욕하신 카쿠타 강에 도착했다. 순례단을 맞아 미얀마 출신인 인도 스님과 신도들이 나와 꽃을 공양하며 환영했다.

여느 때보다도 이른 시각, 해조차 뜨지 않은 카쿠타 강은 부처님의 유훈을 간직한 채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목욕으로 세속의 인간으로 남은 티끌을 털어버리셨듯이, 순례단은 저마다 마음 속 불교 중흥의 원을 세우며 티끌을 지우는 의미로 강물에 손을 적셨다.

그 간절함이 닿아서 일까. 회주 자승 스님이 카쿠타 강에 손을 적시자 순례 시작 이후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 인도 건기에는 비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다. 인도 현지인들조차 상서롭게 생각하는 비는 순례단에 묻은 먼지를 모두 지웠다. 순례단이 이운하는 큰 부처님도, 작은 부처님도 마치 마지막 목욕을 마친 인간 붓다처럼 밝게 빛났다.

현지인들조차 이 비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여겼다. 현지안내를 맡고 있는 라지 야다부 씨(40)는 "인도 건기에는 정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한다"며 "특히 부처님이 씻으신 강물에 스님이 손을 씻자 내린 비는 부처님이 회주 스님과 순례단에 보내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순례단은 환희심으로 행선을 이어가 부처님 다비장인 라마바르 스투파에서 회향했다. 부처님의 열반 후 말라족에 의해 화장 후 나온 사리 등은 다시 불탑신앙으로 이어지고, 가르침은 마하가섭 등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지금까지도 많은 중생들의 의지처가 됐다. 기나긴 세월, 끝없는 고난을 딛고 뭇 중생에게 가르침을 전한 인간 붓다. 열반 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숭고한 길 위에서 순례단은 슬픔과 함께 불제자로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새로운 원을 세웠다.

힌두교도들에게도 부처님은 존귀한 존재로 귀의처가 되고 있다. 열반지에서 기도한다는 그들은 순례단 행렬에 자연스럽게 합장하고 귀의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의 대표 발원으로 순례단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마하가섭에 단 밖으로 두 발을 보이신 도리를, 저희 상월결사 순례단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목욕한 강가서
회주 스님이 손 씻고 의미 다지자
건기 중 비가 오는 상서로움 내려
현지인 "부처님께서 아끼는 마음"



회주 자승 스님이 카쿠타 강에서 손을 씻고 있다. 스님이 카쿠타 강에 손을 씻자 약 20분 가량 비가 내렸다. 건기인 인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상서로운 징조로 여겨진다. 회주 자승 스님은 순례단에게 부처님 가피니 그대로 비를 맞으라고 했고, 순례단은 탐진치 먼지 티끌을 지운 이 비에 환희심이 나서 더욱 정진했다.

'한국불교 중흥' 가사 공양 올려

순례단은 3월 9일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열반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인도순례길에 오른지 29일차, 누적거리 총 689km, 인도 현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순례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환희로움으로 가득 찼다. 이날 법회는 부처님께 그 마음을 담은 가사를 올리는 열반당 참배로 시작됐다. 회주 자승 스님은 직접 '한국불교 중흥발원'을 쓴 금란가사를 부처님 열반상에 공양 올렸다.

정근 후 열반당 앞으로 자리를 옮긴 순례단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께 불교중흥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함을 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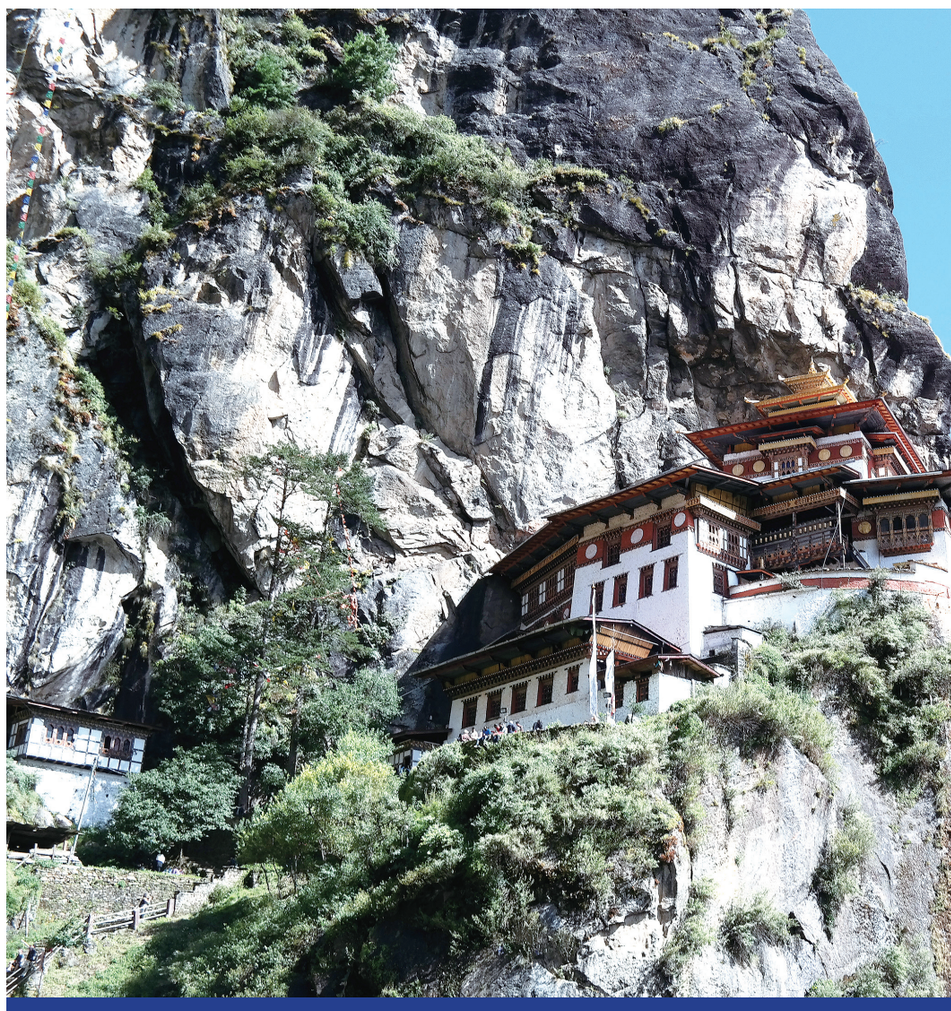
순례단은 2500여 년 전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유훈을 읊으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진오 스님의 대표낭독으로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부처님에게 불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올렸다.

순례단은 "부처님의 인간적인, 부모님 같은 유훈을 가슴깊이 새긴다"며 "이 순례공덕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전환점이 되길 발원한다. 수행하고, 봉사하며, 생활불교, 자립불교, 세상에 이익을 주는 한국불교가 되길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고통 이기며 초심으로 열반길 걷다

앞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이 열반을 향해 걸은 길을 초심으로 걸었다. 누적된 피로와 병마로 고통스러웠지만 수구초심(首丘初心)으로 길을 걸었다.

25일차였던 3월 5일 그동안 토사곽란으로 행선에 부분적으로만 참여했던 총도감 호산 스님(서울 수국사 주지)이 행선 전체 과정을 소화했다.



행복지수가 높은
히 말 라 야
부탄 순례 7일

일 정 : 인천–방콕–파로–팀푸–푸나카–방콕–인천

순례기간 : 2023년 4월 9일~15일 동참금 : ₩4,390,000



특전 ■ 파드마삼바바수행동굴 탁상사원참배
■ 3대쫑(파로,팀푸,푸나카) 방문 ■ 민속공연관람 ■ 링포체친견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